

# 고향사랑기부 연말 초특급 이벤트

### 임실군, 산타축제 연계 현장이벤트·온라인 기부·재기부자 혜택 등 풍성

임실군이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혜택을 한층 더 키운 연말 초특급 이벤트를 선보인다.

임실군은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연말 기부자에 대한 파격적인 경품과 중복혜택을 담은 특별이벤트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리는 '2025 임실 산타축제'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 혜택이 기다린다.

산타축제 현장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 전원에게 기본 답례품은 물론, 1만 6천원 상당의 '임실N 치즈피자(L)' 1판을 무료로 추가증정한다. 치즈피자는 축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으로 제공돼 축

제의 즐거움을 즉시 더할 수 있다.

온라인 기부자를 위한 혜택도 강력하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임실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중 2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1만원 상품권 또는 2만 8천원 상당의 치즈 꾸러미 세트를 각각 100명에게 증정한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임실군에 10만원 이상 기부 이력이 있는 재기부자 중 선착순 20명에게도 2만 8천원 상당의 치즈 꾸러미 세트를 추가 제공하며 네이버페이 1만원 경품과 중복당첨도 가능해 체감혜택을 극대화했다.

민간플랫폼 웹로(Web)이용자에게는 매일 혜택이 쏟아진다.

31일까지 웹로를 통해 임실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중 매일 선착순 20명에게 웹포인트 1만원을 지급한다.

웹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다양한 쿠폰으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천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물)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실군은 여기에 더해 대표 답례품인 임실N치즈요거트를 기부자에게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기부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실=전홍영 기자

### 순창군, 복지분야 연이은 수상 '따뜻한 복지' 실현 성과 거둬

순창군이 올해 복지분야에서 잇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민선 8기가 목표포 한 '따뜻한 복지' 실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먼저,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수급자 진료비를 전년 대비 약 9억 원 절감한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로써 순창군은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20개 지자체(농어촌 지역 5개) 안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자활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지난 9월, 순창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순창군 자체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26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실제로, 군은 자활기금을 활용해 '행복사람 자활근로사업단'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 35명에게 제주도 연수를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군수와 자활기업 간담회를 통해 관로 개척을 함께 모색한 점도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온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최영일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 및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 '착기부주' 각오로 재도약 다짐

### 순창군, 2026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회 거처

순창군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 및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군정 철학과 방향을 공유하고, 2025년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도 부서별 중점추진·신규사업 등 총 250건의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일 군수는 업무보고에 앞서 2026년 군정 사자성어 '착기부주'를 제시하며, "재도약 하는 순창"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군민 중심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군민이 체감하는 전략적 행정을 강조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정착을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순창형 기본사회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 △기업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자연친화적 공설추모공원 조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정책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군민 생활 속 체감도를 높여나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경마공원 유치 △태양광 설치(햇빛언금) △온천수 이용방안 등 세부 정책과 연계한 군민이 체감하는 국가예산·공모사업의 선제적 발굴,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 등 주민 눈높이에 맞는 감동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지시도 이어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 사계절 푸른 캠퍼스 조성

###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도시숲 2차 조성 마무리

남원시는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에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인 도시숲 2차 조성을 12월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철 5월에 완료한 1차 도시숲에 이어 10월부터 2차로 진행되었으며, 내년 봄에는 3차 조성도 예정되어 있다.

도시숲은 학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퍼걸러와 의자들이 놓여 있어 캠퍼스를 거닐다 잠시 앉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휴식처로 기능할 예정이다. 1차 도시숲은 진입로 주변 경관 식재를 중심으로 조성한 반면, 2차 도시숲은 산책로, 쉼터를 조성하고 주요 건물 주변 숲을 조성했다.

이번 조성된 도시숲에는 교목(예메탈드그린 등 16종) 102주, 관목(철쭉 등 4종) 2,410주, 초화류(그린라이트



등 12종) 14,180본이 식재되어 있다. 소나무 등 상록수로 사계절 푸른 캠퍼스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각기 다른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경을 제공하는 낙엽수로 색채감을 더하였으며, 학생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등 정돈된 환경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개비온 울벽을 설치하여 법원에 안정성을 더하고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여성새일센터, 성평등가족부 성과 평가 '가' 등급

남원여성새일하기센터(이하 일하기센터)는 최근, 성평등가족부 주관 성과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국 일하기센터를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지원 결과, 직업교육훈련 운영, 기업 연계, 사후관리, 센터 운영 전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남원 일하기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현장 중심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아 최상위 성과 등급을 받았다.

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1:1 맞춤형 상담과 단계별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일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발굴과 고용연계에 힘쓰는 한편, 농촌·중소도시



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역 여성 고용 기반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일하기센터 김미옥 센터장은 "이번 최고등급 달성은 단순한 평가 결과를 넘어 다시 일하고자 용기를 낸 여성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그 결을 지켜온 현장의 시간이 모여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일하기센터는 앞으로도 여성들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선택'이 아닌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만성감염병관리 '우수'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2025년 감염병관리사업 평가에서 만성감염병관리(예방접종 분야)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대응체계, 예방 접종률 관리, 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특히, 임실군은 관내 14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원활한 백신 수급 관리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 적기에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어린이 예방접종률과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관내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홍보를 독려하는 등 적극 활동을 실시한 점 등이 우수사례로 나타났다.

/임실=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4-H회 상징비 제막식 개최

임실군4-H회(한국4-H임실군본부, 4-H연합회)가 지난 22일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4-H회원 및 유관기관 내빈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H회 상징비 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상징비 제막식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준공을 기념하며, 그동안 농촌 부흥에 기여해 온 4-H 운동의 정성을 되새기고, 선배와 후배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상징비에는 4-H의 상징인 '지(智)·덕(德)·노(勞)·체(體)'의 의미를 담은 녹색 네일클로버와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4-H 금언도 새겨졌다. 이 상징비는 4-H 운동의 핵심 가치를 상기시키고,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4-H임실군본부 양병규 회장은 "상징비 건립은 4-H인들의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4-H 운동이 재도약하고, 4-H 정신이 더욱 보존·계승되어 지역농업 발전에 더욱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 남원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남원시 평생학습관이 관내 평생교육 강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강사를 대상으로, 단순한 강의 기술 전달을 넘어 학습자 이해, 강의 구성력, 현장 소통 능력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특히 실제 강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해 참여 강사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 과정은 △강사의 역할 재정립 △효과적인 강의 설계 △학습자 참여를 이끄는 소통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사 스스로 자신의 강의 방식과 교육 철학을 점검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